

2019년 4월 12일 화요일

죽마, 삼촌 대신

무이라고 말하지?

상황 오늘 삼촌이 날까봐 두려움에 큰 걱정함

날까봐 심지 않았다.

그래서

이럴때는 '삼촌이 날까봐'라고

말하고, 이렇게 말하면

삼촌이 날까봐 걱정하지.

